

# 지방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명소리...

## Regional small scale architect's scream



황정복 | Hwang, Jeong-bok, KIRA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약력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 수원과학대 건축과 겸임교수
-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 건축사회 회장
-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에 시도건축사회가 생긴 1965년 이래 5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여성이 최초로 지역건축사회장 직임을 맡아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규모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를 대신해서 소리를 크게 한번 질러보고 싶다. 만약 누구라도 이 비명소리를 들어준다면 그들과 친구 하겠다.

나는 요즘 슈퍼슈퍼마켓(SSM)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아주 관심 있게, 중요한 이슈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단지 슈퍼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당면한 선결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지방의 도시들은 용어는 조금씩 달라도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하며 모두 건축규제로 묶어 대규모 도시개발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무소에서 수주할 수 있는 일은 말할 수 없이 빈약하다. 우리들 건축사 스스로 “뽕기 형태의 운찰”이라 비아냥거리며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모두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기대하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설계발주 제도인 입찰제도마저도 이제 소규모사무소에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진입자체가 배제되고 있다.

얼마 전 3년 만에 1순위에 낙찰되어 들뜬 마음으로 좋아하던 건축사가 기업신용평가등급 때문에 낙찰이 취소되어 황당해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무슨 중요한 요소이냐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하는 그 건축사를 차마 바라 볼 수 없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꿈도 못 꾸고, 몇 년 동안 작은 규모의 현상설계에 수십 번 도전 끝에 겨우 당선 되어도 당선작 발표 날 딱 하루, 나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를 받는 것이 건축사로서의 행복 끝이고, 그 다음 날부터 각종 협의·심의·심사·인증제도에 치이고, 몇 푼 되지 않는 설계용역비를 쪼개서 여기저기 각종 외주비를 나누어 주는 고통스러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나면 건축사에게 현실적으로 남는 게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경우 설계감리 이행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 해야만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일부 건축사

는 설계감리비에 보증서 관련비용은 건축주에게 말도 못하고 본인이 모른 비용을 부담한 채 보증서를 끊는다. 소규모 사무소의 선량한 건축사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피 같은 돈으로 건축사회비를 내고 직원들의 4대 보험과 밀린 세금을 낸다. 어떤 건축사는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을 압류당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보증보험 증권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일명 “핸드폰건축사” 사무실을 홀로 운영하는 건축사를 감히 누가 비난할 것인가? 지방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유능한 직원을 구하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여태껏 공업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온 직원들을 데리고 불평 없이 일을 해왔다. 이들도 건축사사무소에서 경력이 쌓이면 건축사보도 되고 건축사도 되는 꿈이 있었으니까. 경력이 몇 십 년이 되어도 기사자격증이나 예비건축사 합격증이 없으면 건축사보의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주감리인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도 없다. 솔직히 말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데 기사자격증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있다 해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날마다 좋은 직장을 갈망하며 이직을 생각한다. 건축사사무소의 경력만으로 건축사보의 등록이 그리 어려운가? 건축사자격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로서 ‘상주감리원’의 역할이라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기에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건축사법과 제도만 바뀌 주면 되는 일인데...

건축설계를 열심히 잘해서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건축사로서 우리 지역에 유명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미 이를 수 없는 꿈이 되었다. 사람들은 랜드마크적 대규모 건축물만 기억하지 주변의 평범한 건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그렇듯 지방의 평범한 건축사들도 얼마가지 않아 기억속에서 지워져버리겠지만, 주변의 평범한 건축물들이 도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듯, 대다수의 민생형 건축사, 그들이 지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지방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어깨를 펴고 한국의 건축문화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살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